



금강산에 오르는 청소년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금강산 연합캠프’ 동행 취재



신계사 통일기원법회 모습.



통일기원등을 만드는 학생들.



연합법회 모습.



제10회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7월 24일 밤 삼포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의 장기자랑에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 만 이천 봉에 ‘통일 주역’ 발원

“자비하신 부처님!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덕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남측의 청소년 불자들은 평화로운 조국통일을 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의 제10회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총 1400여명 중 1천 700여명이 7월 24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평화통일을 일심으로 발원했다.

광주 정광도 2학년 손이슬 양의 사회와 운영진 등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청소년들은 “한겨레가 두명의로 갈라졌으나 그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을 참회한다”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불퇴전의 용기와 감로의 법문으로 지혜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민족의 성지인 금강산 신계사에 온 만큼 미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의 법문과 “부처님을 닮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신계사 주지 제정 스님의 환영사를 가슴에 되새겼다.

이어 두 손을 모으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북한의 친구들에게 전달할 정성스럽고 예쁘게 포장한 학용품들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

학생들이 가져온 학용품은 노트 연필 크레용 지우개등 총 32박스나 됐다. 불자기업인(주) 행사에 참가한 김광중(부산 해운중 2년) 학생은 “역대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금강산 신계사와 만물상을 오르며 범기 대사가 1만 2000명의 제자들과 각 봉우리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들으며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금강산 탐방을 마친 뒤 숙소인 삼포 코레스코 콘도리 풀아와 삼포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낙산사 재무국장 무문 스님의 특강을 들었다.

무문 스님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스스로 뜻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강 후 무술인 심팔기 시범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 펼쳐진 청소년 장기자랑시간. 20명이 선보인 장기자랑에서는 학생들이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무용을 선보이며 한 여름밤의 해변을 환호의 물결로 수놓았다.

학생들은 25일 신행활동으로 통일기원등과 통일기원 나무 만들기 및 인경 및 탁본체험을 한 뒤 삼포해수욕장에서 자유수영과 비치볼 놀이 등을 하며 해양활동에 참가했다.

또 오후에는 낙산사를 순례했다. 학생들은 낙산사 유래와 화재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별로 문화재 퀴즈대회와 의상대사 알기, 관음보살 명호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흥련암을 참배하고, 관음굴을 견학한 뒤 해수관음상 앞에서 합동예불을 올린 후 ‘성보문화재 애호에 적극 동참한다’는 발원문을 봉독했다.

학생들은 통일 백일장 대회와 회화선 전야제로 열린 전국청소년음악놀이 페스티벌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금강산/글·사진=김원우 기자

1400여명 신계사에서 통일기원법회 열고 평화통일 발원 학용품 32박스, 축구공·농구공 200여개 北측에 전달 장기자랑으로 젊음 나누고 탁본 체험하며 신행활동도

승도 축구공과 농구공 200개를 함께 기증했다. 학용품 등은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참가학생들과 지도자들은 회장 도후 스님의 선창에 따라 동요 ‘금강산’을 함께 부른 뒤 파라미타캠프 1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계사에 기념식수를 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음마니반에울축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이심경(소, 중)
 · 관세음보살부도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율(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반단,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목염주와 주는 행사(분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x16x16cm 155,000원
 (소) 20x12x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되어 주며 예불에서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직경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육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도 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원(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 원격의 선, 높은음운이 발산하며 북의 북을 불려 27가지 소원이 꼭 98%의 삼관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사 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인 파도 마 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승명화)